

##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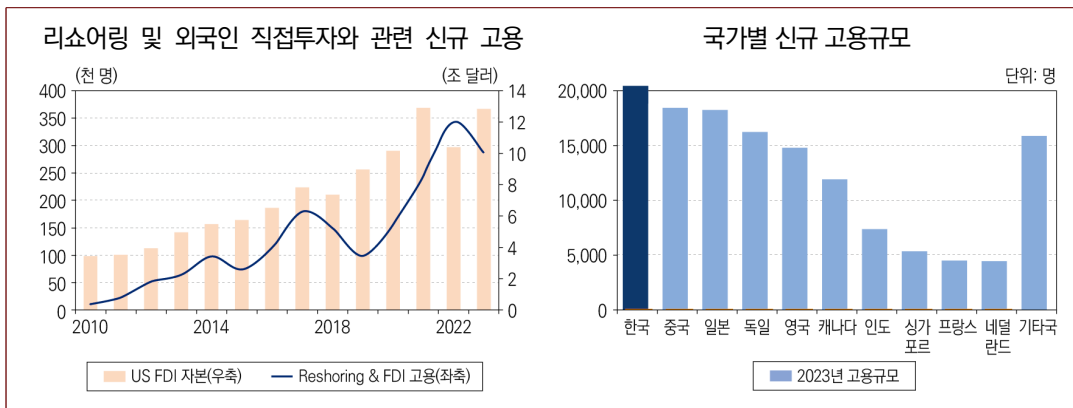
#### | 요약 |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이 증가
  -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위주의 한·미 간 교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 심화 예상
- 본고는 품목별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산업별로 제시
  -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이며,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주어진 수입시장 내에서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로 추정
- 미국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 적용 결과,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7.9조~10.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
  -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5.9~-13.6%, 반도체는 -4.7~-8.3% 수준으로 예상
  -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중 간 경합 관계가 제한적이므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한국의 점유율 확대에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 상승**

- 지난 11월 5일 미 대선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이하 트럼프 2.0)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이 상승,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역시 우려
  - 트럼프 2.0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슬로건으로 정하여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을 정책기조로 채택
  - 통상정책 측면에서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언한 보편관세의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정책 역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가 예상
  - 특히, 미국의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부터 제조업 부흥과 리쇼어링<sup>1)</sup> 정책을 추진한 바 있어 한국에 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및 리쇼어링 정책은 투자유치 및 고용을 유발 (<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 리쇼어링 및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자료: Reshoring Initiative, UNCTAD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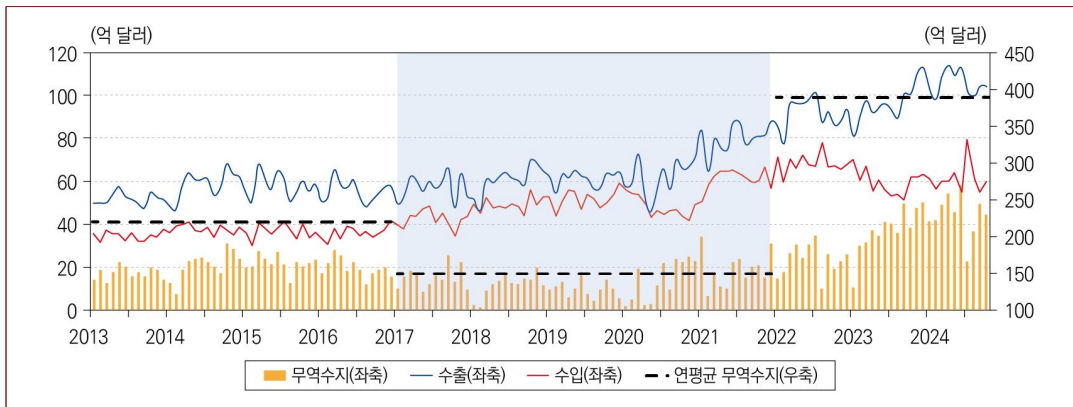
- 최근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낮게 유지된 데에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지속된 외국인직접 투자 유인책이 주요
-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sup>2)</sup>)에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부품을 사용한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미국 내 생산을 유도
- Reshoring Initiative(2024<sup>3)</sup>)에 따르면, 리쇼어링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기인한 미국 신

1) Reshoring is the practice of bringing manufacturing and services back to the U.S. from overseas, Reshoring Initiative, <https://reshorennow.org/what-is-reshoring/>  
 2) IRA에서는 미국 및 FTA 역내 생산된 희소 자원 및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미국 내국세법 제26편 제30D조), 원산지 기준은 배터리의 경우 2024년 50~60%에서 2028년까지 100%의 기준을 지켜야 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  
 3) Reshoring Initiative 2023 Annual Report, Reshoring Initiative.

규고용은 2023년 기준 연간 35만 개에 육박(2022년 34만 7,000개, 2023년 36만 5,700개, 올 상반기까지 18만 2,880개)

- 한국은 이 가운데 2만 360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대비 14%를 차지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이에 트럼프 2.0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정책기조를 계승 또는 확대하여 경기 둔화 완화책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2> 참조)

<그림 2> 대미국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자료: 관세청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음영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시기(2017~2021년)를 표시.

- 트럼프 집권 이전(2012~2016년) 무역수지는 연평균 220억 달러, 트럼프 집권기(2017~2021년) 무역수지는 165억 달러<sup>4)</sup>, 집권 이후 무역수지는 389억 달러로, 집권기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남.
-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무역수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현 한국 수출은 대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5)</sup>

4) 트럼프 집권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포함될 것이나, 2017년, 2018년의 무역수지는 각각 연간 178억 달러, 138억 달러로 2020년의 166억 달러와 큰 차이가 없어 집권기로 구분한 무역수지 동향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5) 한국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2022년 16.06%에서 2023년 18.30%로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 자동차(28.82%), 전기전자(13.65%), 화학(13.19%), 기계류(12.61%), 반도체(9.7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미 수출의 주요 산업별 분석대상 품목의 비중은 <부표 1> 참고.

- 트럼프 2.0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와 생산구조를 점검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 미국의 수입 및 관세 구조를 살펴보면, 품목에 따라 FTA 미체결국인 중국, EU, 일본 등지에서 수입 비중이 높고 기(既)부과 세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관세 부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미국 수출규모 기준 상위 7대 국가는 멕시코, 중국, EU, 캐나다, 일본, 한국, 베트남 등으로, 분석대상 품목에 대한 이들 주요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표 1〉 참조)

〈표 1〉 미국의 대주요국 산업별 수입구조

단위: 억 달러, %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유럽	캐나다	멕시코	주요국 계
음식료	규모	8.7	6.5	10.7	2.8	32.5	59.2	74.9	195.3
	점유율	3.7%	2.8%	4.6%	1.2%	13.9%	25.1%	31.8%	82.9%
섬유의복	규모	9.3	2.6	81.7	47.6	34.9	4.8	14.6	195.4
	점유율	2.7%	0.8%	23.7%	13.8%	10.2%	1.4%	4.3%	56.8%
화학	규모	64.7	66.2	73.1	18.0	156.9	104.3	79.5	562.6
	점유율	8.5%	8.7%	9.7%	2.4%	20.7%	13.9%	10.5%	74.4%
석유정제	규모	32.7	3.5	0.1	0.0	3.0	11.1	0.1	50.5
	점유율	40.2%	4.2%	0.1%	0.0%	3.7%	13.6%	0.2%	62.1%
비금속광물	규모	1.4	0.9	3.1	0.0	3.8	1.3	4.8	15.4
	점유율	7.7%	4.7%	16.4%	0.1%	20.2%	7.2%	25.6%	81.8%
비철금속	규모	37.7	20.9	115.9	16.4	78.7	61.0	77.7	408.4
	점유율	7.1%	4.0%	22.0%	3.1%	14.9%	11.6%	14.7%	77.4%
기계류	규모	87.3	133.5	111.9	17.0	172.1	52.5	139.4	713.6
	점유율	10.4%	15.9%	13.4%	2.0%	20.5%	6.2%	16.6%	84.9%
자동차	규모	210.4	318.4	61.9	3.2	310.2	292.1	455.0	1651.1
	점유율	12.1%	18.5%	3.6%	0.2%	17.8%	16.7%	26.1%	94.9%
기타수송	규모	0.6	1.2	9.3	0.7	3.2	4.0	2.9	21.8
	점유율	2.2%	4.6%	36.1%	2.6%	12.4%	15.5%	11.3%	84.5%
반도체	규모	90.2	12.4	28.9	46.8	33.7	3.6	22.1	237.7
	점유율	16.0%	2.3%	5.2%	8.3%	6.2%	0.6%	4.0%	42.7%
전자	규모	18.0	7.0	73.9	3.2	10.4	0.7	9.2	122.5
	점유율	14.8%	5.9%	55.1%	2.6%	7.9%	0.6%	7.7%	94.5%
전기전자	규모	89.3	87.8	768.5	120.3	164.0	34.7	640.9	1905.5
	점유율	3.8%	3.7%	32.4%	5.1%	7.0%	1.5%	27.1%	80.5%
기타제조업	규모	7.0	3.4	43.5	4.2	13.3	13.4	10.0	94.8
	점유율	6.0%	3.0%	37.8%	3.7%	11.5%	11.7%	8.7%	82.4%

자료: USIT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산업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입 규모와 비중.

2) 수입시장 비중 기준, □는 5~10%, ▨는 10~25%, ▤는 25~50%, ■는 50% 이상.

3) 철강은 수입 쿼터로 인해 관세 인상 시에도 쿼터 이하로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분석에서 제외.

4) 산업연구원의 ISTANS 제조업 분류(40개)를 기준으로 13개 산업으로 분류함. ISTANS 분류표는 〈부표 2〉 참조.

- 분석대상 품목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기간 중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으로 정의
- 분석대상 품목 기준 대미 수출의 약 20%를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약 18%, 유럽이 약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약 8.5%로 일본,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
- 2021년부터 2023년 연평균 수입규모의 경우 주요국 합계 비중이 반도체<sup>6)</sup>(42.65%), 섬유 의복(56.82%), 석유정제(62.09%), 화학(74.43%)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80% 이상을 차지
-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는 중국을 제외하고 0~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며, 중국의 경우 미국 내 점유율 50%, 관세율 10% 이하의 품목이 상당수 존재(〈표 2〉, 〈그림 3〉 참조)
  -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한국에 0%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유럽의 경우 섬유의복, 비철금속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4% 이하의 관세가 부과
  - 중국은 분석대상 품목 기준 대부분의 산업에서 2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미국 내 수입 중 중국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품목들이 2,733개<sup>7)</sup>로 다수 존재, 이들 중 974개의 품목은 관세율 10% 이하, 259개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

〈표 2〉 미국의 대주요국 산업별 관세

단위: %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음식료	0.00	3.83	22.92	3.93	3.93	0.53	0.53
섬유의복	0.00	10.48	29.83	10.48	10.48	0.00	0.00
화학	0.00	3.46	26.25	3.66	3.66	0.00	0.00
석유정제	0.00	2.85	26.14	2.85	2.85	0.00	0.00
비금속광물	0.00	2.28	25.83	2.28	2.28	0.00	0.00
비철금속	0.00	1.79	25.29	5.57	5.57	0.00	0.00
기계류	0.00	1.71	26.15	2.09	2.09	0.00	0.00
자동차	0.00	1.94	26.94	1.94	1.94	0.00	0.00
기타수송	0.00	1.34	19.34	1.34	1.34	0.00	0.00
반도체	0.00	0.00	25.00	0.00	0.00	0.00	0.00
전자	0.00	3.47	24.10	3.47	3.47	0.00	0.00
전기전자	0.00	1.02	21.92	1.14	1.14	0.00	0.00
기타제조업	0.00	0.56	14.45	0.83	0.83	0.00	0.00

자료: USIT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분석대상 품목<sup>8)</sup>에 대한 산업별 단순평균관세율을 나타냄.

2) 철강은 수입 쿼터로 인해 관세 인상 시에도 쿼터 이하로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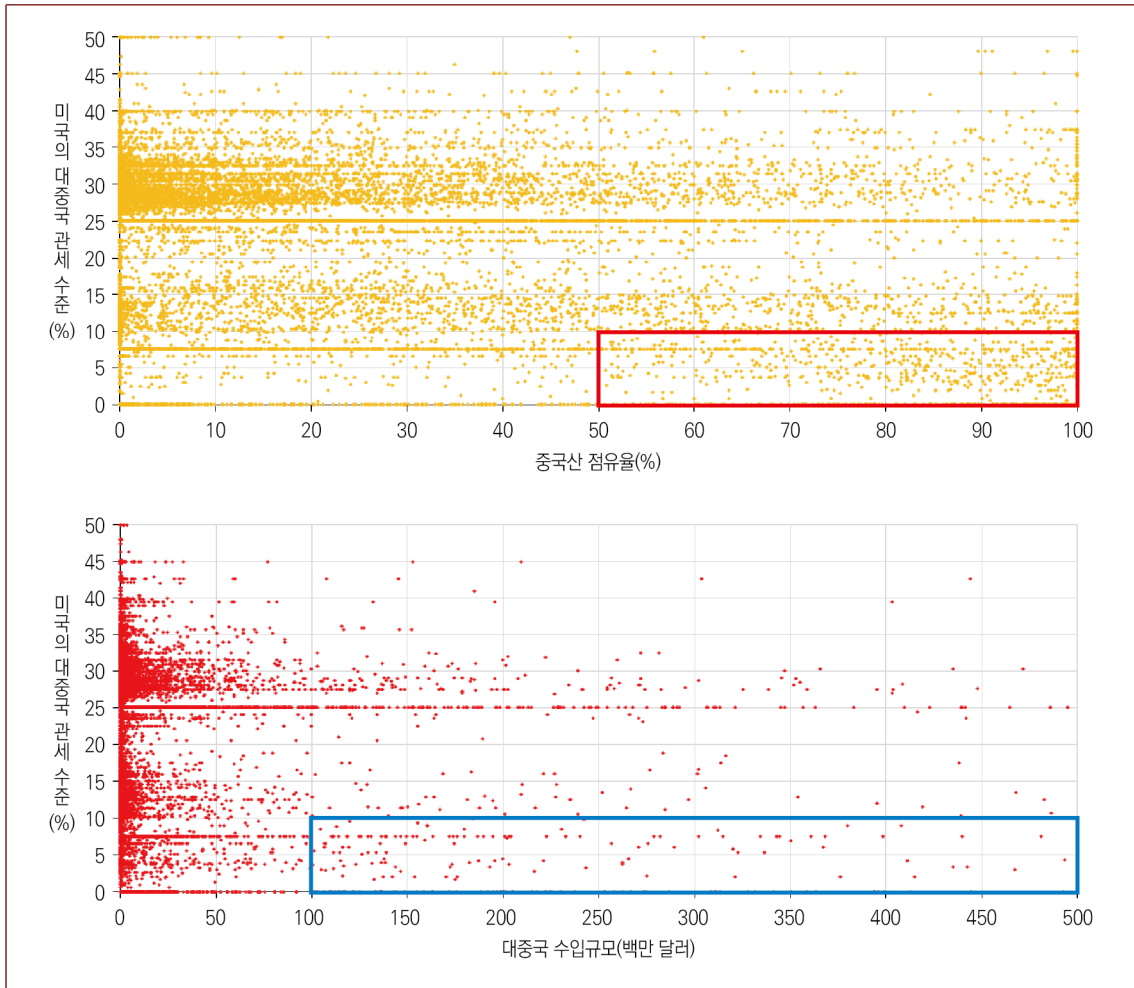
3) 산업연구원의 ISTANS 제조업 분류(40개)를 기준으로 13개 산업으로 분류, ISTANS 분류표는 〈부표 2〉 참고.

6) 미국의 반도체 수입의 경우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주요국 이외 국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HS code 10단위 세번 기준.

8) 본 분석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84개월)간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분석대상 품목으로 정의함.

〈그림 3〉 미국 수입 품목별 중국산 점유율과 관세 부과 현황



자료: USITC, Worldtariff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3년 수출규모 기준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총 645개로 이들 중 255개는 관세율 10% 이하, 100개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

▣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는 -9.3~-13.1% 수준으로 추정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그 외 국가들에 10~25%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상정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각국에 보편관세를 10%, 중국에 대해 차등적으로 60% 관세 부과를 천명(2024. 8. 14<sup>9)</sup>)
  - 이에 본 분석에서는 대미국 수출액이 많은 국가 순으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 일본, 베트남을 주요국으로 선정,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영향을 계측

9)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4/08/14/trump-rally-speech-north-carolina-economy-jd-vance/>

## 〈분석 시나리오〉

- (시나리오 ①)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  
 (시나리오 ②) FT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한국에는 10%, 중국에 60%,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  
 (시나리오 ③) 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  
 (시나리오 ④)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를 부과<sup>10)</sup>

- 시나리오 ①에 비해 시나리오 ②, ③에서는 미국이 진영논리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함을 의미하며, 우선순위의 정도를 미국 → 미국을 제외한 북미 → FTA 체결국 → 중국을 제외한 그 외 국가 → 중국 순으로 차등 적용
- 본고는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를 ①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②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고, 이 둘의 합을 총효과로 산정
  -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이하 시장규모 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시장축소)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내수대체)로 구성
  -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시장 내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를 의미
-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는 -9.3~-13.1% 수준으로 추정
  -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① 기준 -9.3%로 예상되며, 시나리오 ③에서 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커 -13.1%로 예상
  -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
  - 자동차의 경우,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①에서 -7.7%, 시나리오 ④에서 -13.6%로 예상되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
  - 이는 중국의 대미국 자동차 점유율이 3.6%에 불과하여 대중국 관세 부과 변화에 따른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결과

10)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에 이민 및 약물 문제로 25%의 관세 부과를,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 부과를 시사, <https://edition.cnn.com/2024/11/25/politics/trump-tariffs-mexico-canada-china/index.html>

〈표 3〉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미 수출 영향

단위: %

산업구분	시나리오 ①: 주요국(한국 포함) 10% & 중국 60%			시나리오 ②: 멕, 캐, 한 10% & 중국 60% & 기타 20%		
	시장규모 효과 (B)	수출국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시장규모 효과 (B)	수출국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음식료	-7.6	-2.0	-9.6	-9.5	-2.4	-11.9
섬유의복	-17.8	-1.0	-18.8	-21.3	-0.4	-21.6
화학	-7.7	1.3	-6.3	-10.5	0.4	-10.2
석유정제	-4.3	0.0	-4.3	-6.2	-0.2	-6.4
비금속광물	-13.6	-1.6	-15.2	-16.4	-2.3	-18.8
비철금속	-14.7	-0.4	-15.1	-18.1	-0.7	-18.8
기계류	-13.2	2.3	-10.9	-16.7	1.9	-14.8
<b>자동차</b>	<b>-7.8</b>	<b>0.1</b>	<b>-7.7</b>	<b>-10.3</b>	<b>4.4</b>	<b>-5.9</b>
기타수송	-10.1	-7.7	-17.8	-12.3	-3.0	-15.2
<b>반도체</b>	<b>-7.5</b>	<b>2.7</b>	<b>-4.7</b>	<b>-9.7</b>	<b>2.7</b>	<b>-7.0</b>
전지	-24.2	1.7	-22.5	-25.5	1.9	-23.6
전기전자	-14.2	0.6	-13.6	-17.3	0.4	-16.8
기타제조업	-16.3	3.3	-12.9	-18.6	3.4	-15.2
<b>제조업 계</b>	<b>-10.4</b>	<b>1.0</b>	<b>-9.3</b>	<b>-13.1</b>	<b>2.4</b>	<b>-10.7</b>
산업구분	시나리오 ③: 멕, 캐 10% & 중국 60% & 기타(한국 포함) 20%			시나리오 ④: 멕, 캐 25% & 기타 주요국(한, 중 포함) 10%		
	시장규모 효과 (B)	수출국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시장규모 효과 (B)	수출국 간 대체효과 (C)	총효과 (D=B+C)
음식료	-10.2	-2.6	-12.8	-7.3	2.0	-5.2
섬유의복	-22.9	-0.4	-23.2	-8.3	-0.6	-8.8
화학	-11.2	0.8	-10.4	-6.7	0.3	-6.3
석유정제	-6.5	-0.2	-6.7	-7.3	0.4	-6.8
비금속광물	-17.5	-2.2	-19.7	-10.7	1.8	-9.0
비철금속	-19.1	-0.8	-19.8	-9.7	1.0	-8.7
기계류	-19.0	2.2	-16.8	-10.6	-1.3	-11.8
<b>자동차</b>	<b>-11.4</b>	<b>1.2</b>	<b>-10.2</b>	<b>-11.7</b>	<b>-1.9</b>	<b>-13.6</b>
기타수송	-14.7	-3.0	-17.7	-9.1	-5.2	-14.2
<b>반도체</b>	<b>-10.9</b>	<b>2.6</b>	<b>-8.3</b>	<b>-4.7</b>	<b>-1.3</b>	<b>-5.9</b>
전지	-26.4	1.2	-25.2	-6.1	0.0	-6.1
전기전자	-18.3	0.2	-18.1	-9.0	0.2	-8.8
기타제조업	-19.6	3.4	-16.1	-7.2	-1.7	-8.9
<b>제조업 계</b>	<b>-14.3</b>	<b>1.3</b>	<b>-13.1</b>	<b>-9.2</b>	<b>-1.0</b>	<b>-10.2</b>

주: 1) 철강은 수입 쿼터로 인해 관세 인상 시에도 쿼터 이하로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분석에서 제외.  
 2) 산업연구원의 ISTANS 제조업 분류(40개)를 기준으로 13개 산업으로 분류, ISTANS 분류표는 〈부표 2〉 참고.

- 시나리오 ②의 경우, 한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 대미 수출의 수출국 간 대체효과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FTA를 근거로 한 보편관세의 차등 부과가 한국에 차선일 가능성을 시사
- 시나리오 ④에서 북미 지역에 대한 관세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 국적 자동차부품 기업과 한국 내 기업의 대미 수출분에 대한 보완관계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 역시 한국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sup>11)</sup>

11) KOTRA에 따르면, 멕시코 생산 자동차부품 가운데 85%는 미국으로 수출되며, 멕시코 소재 현지 엔진 생산기업인 현대위아의 경우,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1.1조 원의 매출이 발생, 이는 한국의 2023년 대미 엔진 수출 약 5.1억 달러(6,600억 원)의 1.7배 수준.



- 반도체의 수출 감소 효과는 -8.3~-4.7%로 상대적으로 감소가 작게 예상되었으며, 이 결과는 시장규모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편,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큰 데서 기인
- 시나리오 ①~③에서 중국의 관세 인상분을 60%로 가정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반도체에서는 2.6~2.7%가량의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시나리오 ④에서 중국 관세 인상분이 낮은 경우, 수출국 간 대체효과 역시 수출 감소 영향으로 발현
- 미국 내수시장에서 미국 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약 66%, 반도체는 약 29%로 미국 시장이 수입시장 대비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일수록 관세 인상으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sup>12)</sup>
-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는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

**■ 추정된 대미 수출 감소(-9.3~-13.1%)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 (7.9조 원)에서 -0.46%(10.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부가가치 변화는 2022년 산업연관표의 수출금액과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
  - 산업분류는 산업연구원 ISTANS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20개, 기타(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물·재활용)의 총 64개 산업을 적용
  - 산업별 수출금액(산업연관표)에 통관기준의 대미 산업별 비중, 시나리오별 산업별 변화(표 4)를 적용하여 산업별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감소액 추정
  - 산업별 대미 수출 감소액에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각 산업의 수출 감소가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부가가치 변화를 산정
- 예를 들어, <표 4> 시나리오 ①에서 음식료 부문의 부가가치 변화가 -0.1조 원이라는 것은 총수출이 13.48조 원 감소함에 따라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음식료품에서 감소한 부가가치 변화의 합이 -0.1조 원에 이른다는 의미
-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의 20% 관세율 부과를 가정한 시나리오 ③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감소(약 10.6조 원)를 보임.
  - 시나리오 ①에서는 부가가치가 약 -7.92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국가의 관세를 20% 상향한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②에서는 수출 감소액이 크게 추정(약 -15.3조 원)되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 감소 규모도 약 -8.9조 원으로 시나리오 ①보다 더 크게 나타남.

12) 미국의 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CPA)에서 제공하는 DMSI(Domestic market share index)는 산업별 내수시장의 미국 내 생산비중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계산, 여기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기준.

$$DMSI = (1 - (\text{수입} / (\text{생산} + \text{수입} - \text{수출}))) * 100$$

-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④는 시나리오 ①과 유사한 수출 감소액(약 -13.4조 원)과 부가가치 감소액(약 -7.9조 원)을 나타냄.
- 시나리오 ①과 시나리오 ④의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유사하지만, 산업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4〉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영향

단위: 조 원, %

산업구분	시나리오 ①: 주요국(한국 포함) 10% & 중국 60%				시나리오 ②: 멕시코, 캐나다, 한국 10% & 중국 60% & 기타 20%			
	수출 변화		부가가치 변화		수출 변화		부가가치 변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음식료	-0.15	-0.01	-0.10	0.00	-0.19	-0.02	-0.13	-0.01
섬유의복	-0.49	-0.05	-0.25	-0.01	-0.58	-0.05	-0.29	-0.01
화학	-1.46	-0.14	-0.87	-0.04	-1.93	-0.18	-1.13	-0.05
석유정제	-0.40	-0.04	-0.11	0.00	-0.60	-0.06	-0.16	-0.01
비금속광물	-0.11	-0.01	-0.07	0.00	-0.14	-0.01	-0.09	0.00
비철금속	-0.82	-0.08	-0.47	-0.02	-1.00	-0.09	-0.58	-0.03
기계류	-1.73	-0.16	-1.13	-0.05	-2.36	-0.22	-1.54	-0.07
자동차	-3.33	-0.32	-2.10	-0.09	-2.57	-0.24	-1.62	-0.07
기타수송	-0.03	0.00	-0.02	0.00	-0.03	0.00	-0.02	0.00
반도체	-0.43	-0.04	-0.25	-0.01	-0.64	-0.06	-0.37	-0.02
전자	-1.18	-0.11	-0.48	-0.02	-1.24	-0.12	-0.51	-0.02
전기전자	-2.72	-0.26	-1.57	-0.07	-3.34	-0.32	-1.91	-0.08
기타제조업	-0.63	-0.06	-0.50	-0.02	-0.72	-0.07	-0.57	-0.02
<b>전 산업 계</b>	<b>-13.48</b>	<b>-1.28</b>	<b>-7.92</b>	<b>-0.35</b>	<b>-15.33</b>	<b>-1.45</b>	<b>-8.92</b>	<b>-0.39</b>
산업구분	시나리오 ③: 멕시코, 캐나다 10% & 중국 60% & 기타(한국 포함) 20%				시나리오 ④: 멕시코, 캐나다 25% & 기타 주요국(한국, 중국 포함) 10%			
	수출 변화		부가가치 변화		수출 변화		부가가치 변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음식료	-0.20	-0.02	-0.14	-0.01	-0.08	-0.01	-0.06	0.00
섬유의복	-0.61	-0.06	-0.31	-0.01	-0.23	-0.02	-0.12	-0.01
화학	-2.02	-0.19	-1.17	-0.05	-0.96	-0.09	-0.52	-0.02
석유정제	-0.63	-0.06	-0.17	-0.01	-0.64	-0.06	-0.18	-0.01
비금속광물	-0.14	-0.01	-0.09	0.00	-0.07	-0.01	-0.04	0.00
비철금속	-1.08	-0.10	-0.61	-0.03	-0.48	-0.05	-0.27	-0.01
기계류	-2.67	-0.25	-1.74	-0.08	-1.81	-0.17	-1.19	-0.05
자동차	-4.41	-0.42	-2.78	-0.12	-5.89	-0.56	-3.71	-0.16
기타수송	-0.04	0.00	-0.03	0.00	-0.03	0.00	-0.02	0.00
반도체	-0.76	-0.07	-0.44	-0.02	-0.54	-0.05	-0.32	-0.01
전자	-1.33	-0.13	-0.54	-0.02	-0.32	-0.03	-0.13	-0.01
전기전자	-3.51	-0.33	-2.02	-0.09	-2.01	-0.19	-1.12	-0.05
기타제조업	-0.74	-0.07	-0.59	-0.03	-0.29	-0.03	-0.22	-0.01
<b>전 산업 계</b>	<b>-18.14</b>	<b>-1.72</b>	<b>-10.63</b>	<b>-0.46</b>	<b>-13.35</b>	<b>-1.26</b>	<b>-7.89</b>	<b>-0.34</b>

주: 1) 철강은 수입 쿼터로 인해 관세 인상 시에도 쿼터 이하로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분석에서 제외.  
 2) 산업연구원의 ISTANS 산업분류(64개 산업)로 정리된 2022년의 산업연관표의 수출금액과 부가가치유발계수 활용. ISTANS 산업분류는 〈부표 3〉 참고.  
 3) 수출 변화 금액 = 2022년의 산업별 수출액(산업연관표)\*2022년 (통관기준)산업별 수출에서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산업별 대미 수출 감소율(〈표 3〉 참고).  
 4) 부가가치 변화: 산업별 수출 변화 금액에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적용.

- 중국에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①과 멕시코 및 캐나다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 ④는 총수출 감소 효과(시나리오 ①: -13.48조 원, 시나리오 ④: -13.35조 원)와 부가가치 감소 효과(①: -7.92조 원, ④: -7.89조 원)가 유사한 수준
-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우, 총수출 감소 효과(①: -3.33조 원, ④: -5.89조 원)와 부가가치 감소 효과(①: -2.1조 원, ④: -3.71조 원)에서 두 시나리오 간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①에서 한국의 수출과 부가가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
- 반면, 시나리오 ④에서 자동차의 수출과 부가가치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해 완성차와 주요 부품 공장을 멕시코에 다수 이전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sup>13)</sup>
- 부가가치 측면에서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반도체 제외)는 수출 변화 금액과 부가가치 변화 금액이 모두 크게 나타난 반면, 전지와 화학은 수출 금액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그 감소폭이 수출 변화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 유출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

- 분석 결과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목표로 하여, 주요 효과는 각국의 관세구조 변화보다 미국 수입시장 축소에서 기인
  - 관세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 및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미국 내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 관계가 크지 않아 규모 효과(시장규모 효과)를 상쇄할 만큼 점유율 확대(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sup>14)</sup>
-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

13)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관련 기사: 트럼프 관세 예고에 멕시코 진출 차, 부품, 캐나다 배터리 '비상',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4/11/27/B7HYSFGTJFFJFBCMOXUBLLQD2E/?utm\\_source=chatgpt.com](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4/11/27/B7HYSFGTJFFJFBCMOXUBLLQD2E/?utm_source=chatgpt.com)

14)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 및 비교우위 현황은 부록 참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품목은 전체 1만 6,842개 가운데 803개로 4.8%에 불과.

-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미 FTA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제외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 또한 존재<sup>15)</sup>
-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할 필요
- 한국은 트럼프 1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를 설득한 바 있으며, 이때 미국 내 수입기업들의 생산비 상승 우려 의견이 공청회에서 피력되었음.
- 본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생산기지 이전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져 국내 생산 대체 현상의 심화가 우려
  -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효과가 가장 컸던 만큼, 트럼프 2.0에서도 한국계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유치 유인책이 강력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
  -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하여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요구

김정현 동향·통계분석본부 | 전문연구원 | kim@kiet.re.kr | 044-287-3918

김현석 동향분석실 | 부연구위원 | hyunseok.kim@kiet.re.kr | 044-287-3670

박성근 동향분석실 | 연구위원 | sungpark@kiet.re.kr | 044-287-3172

15) 중앙일보(2024. 11. 11), “역대 통상본부장 “트럼프 보편관세, 협상이 중요…車관세도 대비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144>

## 〈 부 록 〉

### ■ (부록 1) 보편관세 효과 추정 방법론

-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는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수출 변화에 대한 부가가치 효과를 계산
  -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이하 시장규모 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시장축소)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내수대체)로 구성
  -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주어진 수입시장 내에서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로 추정
  - 시장규모 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를 더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가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한국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산출
-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변화는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시장규모 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
  - 각국 관세가 인상되면 하기 식 (1)에서 추정된 미국의 품목별 대세계 수입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관세 인상의 시장규모 효과를 추정
  - 이때, 수입가격 변화로 인한 수입물량 변화(수입시장 축소분)는  $\beta$ 로 나타나며,  $t$ 기의 관세 변화를 고려한 수입물량 변화는 아래의 식 (2)와 같음.

$$USimp_{i,t}^{wld} = \beta_1 p^{wld_{i,t}} + \beta_2 IPI_t + \sum_{k=1}^3 \gamma_k Dollar_t + \Theta X + u_{i,t} \dots\dots\dots (1)$$

$$\Delta USimp_{i,t} = \frac{\Delta tariff_{i,t}}{(1 + tariff_{i,t-1})} \dots\dots\dots (2)$$

- 여기서,  $USimp_{i,t}^{wld}$ 는 미국의  $i$ 품목  $t$ 시점 대세계 수입물량,  $p_{i,t}^{wld}$ 는 대세계 수입가격,  $IPI_t$ 는 미국의 산업생산지수,  $Dollar_t$ 는 미국 달러지수,  $X$ 는 이외 통제변수벡터를 의미
- 다음으로,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다음 식 (3)을 통해 추정하며, 이때  $\delta_r$ 을 통해 주어진 수입 시장규모에서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한국의 점유율 변화분을 계산

$$MS_{i,t}^{kr} = \sum_{r \in c} \delta_r rp_{i,t}^{r,kr} + \sum_{k=1}^3 \psi_{kr,t-k} + \sum_{k=1}^3 \sum_{1r \in c} \psi_{r,t-k} exr_{t-k}^r + u_{i,t} \dots\dots\dots (3)$$

- $MS_{i,t}^{kr}$ 는 한국의  $i$ 품목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을 나타내며,  $rp_{i,t}^r$ 는  $i$ 품목에 대한 주요국  $r$ 과 한국의 상대가격,  $exr_{t-k}^r$ 은  $r$ 국 환율,  $X_t$ 는 이외 통제변수벡터(품목별 경쟁도, 시간 터미변수

등)를 의미

- 보편관세 적용의 대한민국 수출 감소분은 식 (1)~(3)을 통해 추정된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의 합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모형은 관세 변화에 의한 대미 수출의 직접적인 효과만 측정한 부분균형모형으로 간접수출, 세계 교역 감소 등을 고려 시 점유율 대체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트럼프 1기 정부 관세정책 이후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은 감소하지만,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더불어 이 경로를 통한 중국의 대미 간접수출이 증가(김영귀 외, 2024<sup>16)</sup>)
  - 관세로 인한 공급망 블록화 등의 무역마찰은 세계 교역의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간접수출이 감소
  - 간접수출, 공급망 블록화 등을 고려한 일반균형 모형분석에서 한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영귀 외, 2024).

## ■ (부록 2) 분석대상 품목 비중

- 본 연구의 분석대상 품목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분석기간 중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으로 정의함.
  -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분석대상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1〉 산업별 분석대상 품목 비중

단위: %

	분석대상 품목 비중
음식료	66.95
섬유의복	59.06
화학	45.42
석유정제	68.80
비금속광물	28.69
비철금속	43.36
기계류	64.92
자동차	68.62
기타수송	5.49
반도체	87.17
전지	50.61
전기전자	61.23
기타제조업	3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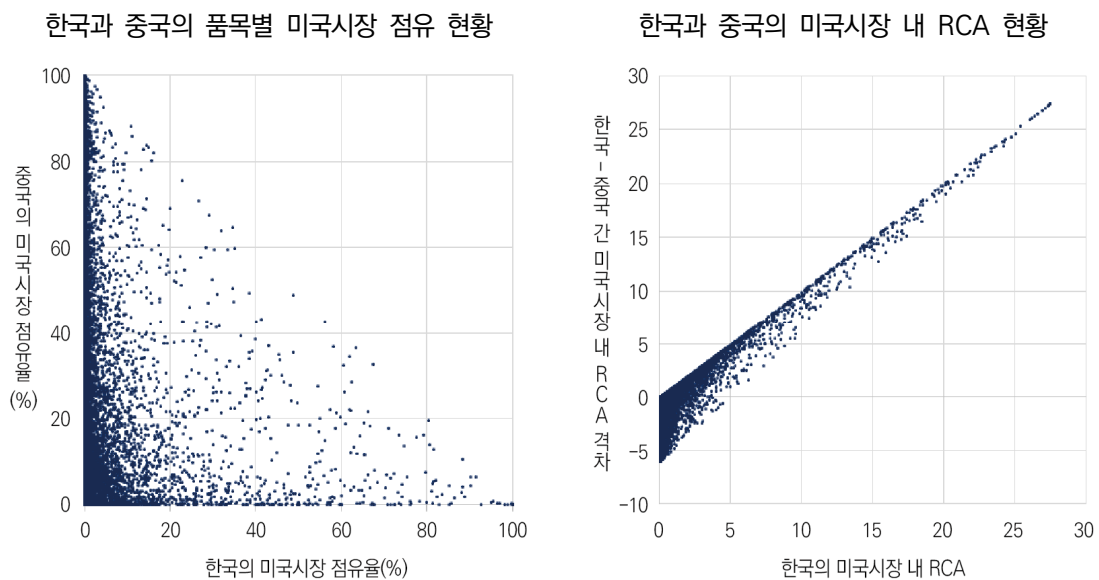
자료: USIT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비중을 나타냄.

16) 김영귀 외(2024),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 (부록 3) 미국시장 내 한·중 간 경합관계

-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 내 현시선호우위지수(RCA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미국시장 내 RCA가 높은 품목에서 그 격차도 큰 한편, 한국의 RCA가 낮은 품목에서는 음(-)의 RCA 격차가 나타나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중 간 경합관계는 일부 품목에서만 나타남을 시사
  -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양국이 10% 이상을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품목 수는 474개로 전체 품목 수 가운데 2.8%에 불과
  - 한국의 RCA가 큰 품목은 중국의 RCA가 작은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서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



### ■ (부록 4) 분석대상 품목 분류기준

- 본 연구의 산업 분석에는 ISTANS 분류표를 사용하였으며, 수출 품목 단위인 HS 코드와의 연계는 ISTANS 60대 산업 - HS 코드 연계표<sup>17)</sup>를 사용함.

17) [https://www.istans.or.kr/kor/board/BoardDetail.html?sec\\_seq=&menu\\_id=2008102&\\_csrf=37c0bf95-d6bb-4dec-b083-04b610fae3ea&board\\_class=BOARD99&board\\_seq=1290&searchType=subject&keyword=&pageIndex=1](https://www.istans.or.kr/kor/board/BoardDetail.html?sec_seq=&menu_id=2008102&_csrf=37c0bf95-d6bb-4dec-b083-04b610fae3ea&board_class=BOARD99&board_seq=1290&searchType=subject&keyword=&pageIndex=1)

〈부표 2〉 분석대상 품목-ISTANS 60대 산업 연계표

분석대상 품목 산업분류	ISTANS 산업분류
음식료	음식료, 담배
섬유의복	섬유, 의류, 가죽신발
화학	의약, 정밀화학, 석유화학, 고무, 플라스틱
석유정제	석유정제
비금속광물	유리, 세라믹, 기타비금속, 시멘트
철강 및 금속제품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기계류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자동차
기타수송	철도, 기타 수송장비, 항공, 조선
반도체	반도체
전자	전자
전기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기타 전자부품, 전기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기타제조업	제지, 인쇄, 기타 제조업, 목재, 가구

〈부표 3〉 ISTANS 산업분류

ISTANS(제조업)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전자, 항공,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타 전자부품, 전기기기,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철도, 기타 수송장비, 석유정제, 고무,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시멘트, 기타비금속,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조선,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가죽신발, 목재, 제지, 인쇄, 가구, 기타 제조업
ISTANS(비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폐수처리 및 자원재활용, 건설, 도·소매업, 운수·보관, 출판, 방송, 통신, 정보,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서비스, 사업지원, 공공행정,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기타 서비스

자료: www.istans.or.kr

주: 산업연관효과 분석에 사용된 ISTANS 산업분류.